

“ 글로벌 교회로서의 사명 ”

■ 이종윤 원로목사

글로벌 시대의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이슈와 의제들이 있다. 교회는 글로벌 시대의 위험과 그 심각성을 알려줄 사명이 시급하다. 그것은 결국 황금만능주의 즉 돈으로 세상이 되어 가고 꾸며지고 있다고 믿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고 쳐부술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뿐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경제지상주의의 위기에 처한 글로벌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모험적인 과도 투기와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기인한 돈의 흐름 뒤에 숨어 있는 사기, 어리석음, 교만 그리고 탐욕의 문제를 교회 외에 누가 지적할 수 있나?

하나님 없는 부에 대한 경고

세상의 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죄악을 저지르는데까지 가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부는 경고를 받게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 52:7) 이런 자들을 가리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막 10:25)라고 하셨다.

부의 나눔 vs 낭비, 허비, 우상숭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돈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천국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신앙인들이 세상엔 많이 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Andrew Carnegie)는 자기 재산으로 2,500여 개의 도서관, 20여 개의 대학을 설립 지원했다.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400억 달러의 재산을 기부한 빌 게이츠(Bill Gates), 자기 재산의 83%를 기부하겠다고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외친 워렌 버핏(Warren E. Buffett)같은 부자들이 미국 내 전체 기부자의 20%로 총기부액의 80%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오만하고, 돈으로 사람의 능력과 가치와 수준을 결정하려 한다. 그러면서 부는 묘하게 인식하다. 이런 이들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그 부에 매달리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자기 치부에만 급급하고 자기를 위해 낭비나 허비한다. 낭비는 경제를 훼손하는 사회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풍요를 겸손과 근면으로 받고 지키고 키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웃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이다.

글로벌 교회로서의 사명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력만이 아니다. 한국 교회의 세계적 위상 그 실체이다. 한국 교회의 영감과 열의 그리고 교회 인구의 상위구조에 세계 열강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다. 워낙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대형교회당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고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와 설교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신학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내 교회, 내 교파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세계 어디에도 확대된 세계적 방위(方位)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한 세기 동안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갖추게 하신 것이다. 이 시대에 준비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2014년 8월 30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을의 문턱,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하고 성숙의 계절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땀기를 소원합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가을학기 성경대학과 열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자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에도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도들 사이의 만남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828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리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어디서 오셨습니까? ”

■ 사도행전 5:33-42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요 3:13)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다’고 하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존재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붙잡혀 공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율법고사 가말리엘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 죄사함의 진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의 기능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죄를 사함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주장하는 죄사함의 길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복음을 받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제사장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하고 저지하려 간간힘을 썼습니다. 이 때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이 사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여기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면 어찌하려는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죄 사함의 확실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2. 신앙과 양심을 따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위협하고 더 이상의 전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18-20) 대제사장의 엄명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라며 일축합니다. 오히려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참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헌신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기쁨이 있는 최선의 헌신을 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중단 없는 헌신

공회에서 체적질 당하고 위협받은 후 풀려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 그치지 않는 사역과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중단 없는 사역으로 교회 역사를 이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유희과 박해가 몰려올 때 모임과 전도와 선행을 중단하지 말자는 다짐과 각오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잠시 멈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추고 물러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모든 교회들은 멈추지 않는 신앙적 투쟁과 영적 순례를 이어왔고 그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헌신했던 충성된 신앙인의 전통을 오늘의 우리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사 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2(시19)...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98(3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행 5:33-4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36(38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19:1-2 인 도 자
 찬 송 29 다 합 께
 기 도 오명걸 집사
 찬 송 417(476) 다 합 께
 성 경 왕상 2:1-12 인 도 자
 장학금 수여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 설 교 자
 * 찬 송 490(542)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김익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진현 권사 II부: 송희숙 권사
 성 경 왕상 2:13-3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헛된 세상 영광”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동수 목사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1. 장학회 모임 / 28일(주일) 오후 12시30분 506호
2. 바자 준비 모임 / 28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 장 레**
 1. 故 초창제 성도(8교구 강애자 권사의 부군, 조민주, 조범수 성도의 부친) / 8월23일(화) 별세, 8월26일(금) 천국환송예배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영화	3-3	에스더	김순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안목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우연적 사건으로 해석치 않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뿌린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저들의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재촉하시었다.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죄까지 안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운동이 전국 교회에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